

園芸 산업 振興 적극 지원  
 發展 기틀 마련

韓國園芸学会 篇

◇ 学会의 創立과 初期의 活動

우리나라에서 園芸學人士들의 學術活動은 1954년 이후 '62년까지 韓國農學會를 통하여 해오다가 학문의 專門性을 살리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3년 봄 農學會로부터 分離, 獨立하게 되었다.

1962년 各農科大學의 園芸學 担当 教授와 園芸試驗場 간부들로 學會創立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會則草案 作成 등 준비를 서둘러 1963년 4월 6일 水原에 있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에서 登錄會員 183名이 참석한 가운데 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 會則通過에 이어 初代會長으로 當時 園芸試驗場長이었던 金東祐씨, 副會長으로서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의 李台現, 表鉉九 兩教授를 선출하여 마침내 「韓國園芸學會」의 出帆을 보게 된 것이다.

學會創立 後 처음으로 맞이하는 秋季臨時總會 및 研究發表會를 위한 各種委員會의 구성, 諸規定의 草案作成 등으로 半年을 보내고 그해 10월 20일에 臨時總會 및 研究發表會를 高麗大學校 農科大學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14編의 論文이 發表되었다.

다음 해인 64년 봄 定期總會 때까지 發刊 予定이었던 學會誌는 原稿의 수집의 미비와 財源 確保의 어려움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64年末에 열린 編輯委員會에서는 이러한 現實을 감안하여 그동안 接受된 8編의 論文을 審査해서 創刊號에 掲載키로 하고 發行日字는 65년 定期總會日로 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부족한 出版費用은 會長團이 篤志家들로부터 회사를 받아 補完하기로 했다.

이러한 財政難 속에서도 學問의 발전과 園芸 産業 振興에 이바지 하려는 會員들의 의욕만은 嘉尚할만 하였다. 즉 젊은 園芸學徒들의 研究 意欲을 고취시키고 研究費의 일부라도 도와 주는 의도아래 1963년 10월 評議院회의의 결의로 「園芸學會賞」制度를 만들었으나 1966년 臨時總會에서 鄭德教씨에게 한번 施賞하고 그뒤 中斷되었다. (1978년부터는 새 規定에 의해 施賞하고 있음)

初期의 学会 活動 意欲은 「对政府 建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64年 定期總會에서 園芸 産業振興을 위해 政府에 建議書를 제출하기로 決議하고 數次의 委員會를 거쳐 마침내는 園芸 学会 외에 여섯개의 民間團體도 이에 連署하고 會議에 참석하지 못한 22개 단체는 同意書를 첨부하여 建議書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建議書의 骨子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食糧作物로서의 園芸作物의 增産策

○輸出作物로서의 園芸作物의 增産策

○1, 2項을 具現시킬 수 있는 制度의 改革

65년 5월 7일자로 政府 요로 및 관계기관에 提出된 建議書에 대해 6월 22일까지 口頭 또는 書面으로 回信된 내용은 「최대한으로 참작하겠음」이었다. 이에 대해 評議員會는 「建議內容을 貫徹하기 위하여 계속 여론을 환기시켜 積極推進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園芸学会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은 「標準種名 및 術語制定」을 하기로 65년 2월 評議員會에서 決議한 것이다.

用語의 混亂은 비단 園芸分野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當時 모든 學術分野의 공통적 문제였었다. 한 예를 든다면 溫水에 열을 내기 위해 밝아 넣은 有機物을 「양열재료」, 「양열물」, 「열내거리」, 「열감」 등 여러가지 말이 멋대로 쓰여지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물뿌리개」를 「如露」, 온상창을 「溫床障子」등 日語를 그대로 쓰는 예도 많았다. 當時 指導的 位置에 있던 園芸人들은 國語의 순화와 科學用語 통일 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政府의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各自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사업을 기필코 완성시키기로 서로 굳게 다짐하고 菜蔬, 果樹, 花卉 및 造園의 세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歷史的 事業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같으면 種名과 學術用語를 뽑아서 審議資料를 만드는 일만도 상당한 額面의 用役事業이 될 것이지만 당시의 園芸人들은 만약의 경우 프린트 비용도 分科別로 委員들이 自擔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종이를 오려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동시 文敎部에 지

원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文敎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추진중이었으므로 절충한 결과 文敎部 事業에 合流하기로 하고 약간의 財政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分科別로 검토한 뒤 다시 103명의 關係人士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合同委員會檢討를 거친 뒤 文敎部에 제출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用語 및 種名은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上述한 것 이외에도 몇가지 事業을 意欲으로 추진하는 등 学会의 活動은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財政難은 加重되었고, 특히 对政府 建議書 提出에는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다.

#### ◇ 成長期의 內実化

1967년부터 1976년까지 10년동안에는 对外的 活動은 거의 없었고 오로지 学会 自體의 內実을 期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즉 1963년에 창립된 園芸学会는 66년까지 단지 2卷의 学会誌를 간행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68년 이후 每年 春秋로 2卷씩의 学会誌를 발행하여, 76년까지 222篇의 論文을 수록했다. 이로서 園芸学誌會는 우리나라에서 園芸學分野의 가장 權威 있는 學術誌로 公認을 받게 된 것이다.

年 2회의 學術誌 간행이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創立後 5개년 동안에는 学会의 가장 基本的 事業인 学会誌 年1회 발행조차 감당하지 못하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多幸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学会活動이 이와 같이 內実을 기할 수 있게 되는데 두가지 큰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初期에 对政府 建議書 提出 등 对外的 活動에 상당한 時間과 精力을 바쳐 보았으나 「別無成果」였다는 반성에서 学会 本然의 學術活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둘째는, 68년도부터 科學技術處에서 学会誌 발간을 위한 補助金을 지급하게 되어 實績을 올리기 위해서도 学会誌를 年2회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

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科学技術처의 学会補助金 支給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당시 財政的으로 매우 어려웠던 多大數의 自然界 学会活動에 큰 活力素가 되었음은 우리나라 学会史上 特記할만한 善策이었음을 指摘한다.

科技처의 補助金 支給을 계기로 学会員 自身들의 学会의 財政的 自立을 위해 應分의 責任을 分擔하기로 결의하였다. 즉 대학의 助教授 이상 및 3甲이상의 공무원의 회비를 1,000원, 正會員은 3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인상하고, 찬조회원은 2,000원 이상, 단체회원 10,000원 이상, 全國의 원예학회학생은 準회원으로 가입시켜 년 200원의 회비를 받기로 하고 또한 미납공비징수, 제고학회지의 대학별할당판매(68, 10, 19 평의원회 결의), 평의원수를 늘려 회장단과 함께 涉外活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大學의 園芸學科 학생들의 勉學분위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심포지움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 發表者 및 質疑者에게는 園芸學會長賞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園芸學會가 主管하는 심포지움이 본래에 오 른 것은 內實을 期하려는 執行部의 學會運營方 針의 所産으로서 그 수준은 每年 향상하여 이 켜 企劃, 進行, 內容 面에서 別 손색이 없는 수 준에 도달 하였다. 成長期 후반 5개년간에 論 文의 질적향상도 뚜렷하지만 특히 研究의 動向 이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 려는 자세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즉 이 기간에 發表된 12편의 論文中에서 마늘, 고추, 무궁화, 한국잔디에 관한 것이 합 계 34편으로 전체의 26%에 달한다. 이 기간동

안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여러편의 論文이 발 표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고추의 雄性 不穩性」 과 「한국잔디의 發芽에 관한 論文같은 것은 學 問과 産業發展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 ◇ 發展期의 活動

全會員들의 열성과 各有關機官 및 관련 企業 體의 積極적인 協助로 募金目標額 200萬원의 (2.5倍가 넘는 5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려 行事도 盛大하였지만 會員들의 사기가 크게 고무되었 으며, 行事に 쓰고 남은 270여만원은 그동안 棼 棼이 모아 오던 基金에 보태어 지금의 基金은 상당한 거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創立15周年을 기하여 每年 園芸學會賞 (賞牌와 副賞)을 수여하기로 하고, 78년도 園芸 學會賞(次1回)은 盧承文(本賞), 柳根昌(奨勵 賞), 吳成都(奨勵賞) 會員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學會가 年輪을 거듭함에 따라 그동안 學 會의 발전을 위해 功이 많았던 元老會員들이 공 직에서 은퇴하게 되어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名譽會員 制度를 신설하여 78년도에는 그때까 지 公職을 떠난 9분을 모시기로 하였다.

앞으로 學會의 힘이 자라면 學會誌를 發行回數를 늘려 發行할 계획이다.

過去 約 10여년 동안 學會의 事務所가 會長 을 따라 移轉하는 동안 國內는 물론 특히 國際 交流面에서 지장이 많았으나 이제는 「水原市 서 울大 農大 園芸學科內」로 固定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제부터 韓國園芸學會도 國際的紐帶 를 擴大 強化하고 交流를 추진함으로써 園芸產 業振興에 이바지하는 同時 自体發展을 꾀할 계 획이다.

健全한 生活秩序 調和로운 公共秩序